

제4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을 마치고

제4회 고분자 산·학·연 하계 심포지움이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최되었다. 산·학·연 심포지움은 과거 14년간을 이어 온 고분자 하계대학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제1회 개최 이래 고분자학회의 대표적인 여름행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 연구소, 학계 및 관계 인사들이 모여 고분자 산업관련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인하여 이 심포지움을 개최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행사에는 어느 해 보다도 기대가 되게 하는 심포지움이었다. 평창 휘닉스 파크는 용평 약간 못 미쳐서 있었으며 일찍부터 기승을 부리는 더위를 피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이었다. 많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 그리고 친교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금년도 행사에서 특이한 점은 “고분자 연구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Gordon Research Conference에서와 같이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포스터 발표를 개최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간친회를 둘째날에 개최한 점, 그리고 개최장소가 용평이 아닌 점도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날 오후에는 박 훈 상무(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석유화학공업의 현황과 전망, 정광춘 박사(잉크테크사장)의 정밀화학 산업의 벤처기업전략, 그리고 김은영 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R&D 정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고분자 산업 및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참석자들의 진지한 질문과 토의가 이어졌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포스터가 있었으며 오후에 있었던 강의 주제에 관한 토론 및 포스터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제공된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둘째날에는 최창현 이사(삼성종합화학)의 자동차 산업과 고분자, 박이순 교수(경북대학교)의 Flat Panel Display 제작용 고분자 재료, 그리고 이상인 소장(태평양기술원)의 화장품과 고분자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흥미있는 질문들이 오고 갔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삼삼오오 나누어서 친교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었고 저녁에는 푸짐한 부페식사와 많은 선물이 제공되었다.

셋째날은 포스터 발표 및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움의 막을 내렸다. 3일간의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한 점을 이해해주고 협조하여 주신 참가회원 및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끝으로 회원 친선경기를 위하여 선물을 제공하여 준 태평양화학, 맥주를 제공하여 준 OB맥주에 감사드린다.

(재무간사 조창기)

□ 참가자 명단

김광웅 KIST 고분자부	신동준 변리사회	최병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수현 KIST 고분자부	윤준성 유공대덕기술원	최창현 삼성종합화학
김연수 강남화성	이광섭 한남대	하영철 동부·한농화학
김영범 코오롱그룹중앙(연)	이광희 인하대	홍순만 KIST 고분자부
김은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두성 성균관대	안광덕 전무이사
김정안 KIST 고분자부	이상인 태평양화학	김성수 편집간사
김준경 KIST 고분자부	이상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기국 편집간사
김진곤 포항공대	이안기 호남석유	조길원 조직간사
김학영 동성화학	이영무 한양대	조창기 재무간사
김현민 중앙방수기술연구소	이영철 생산기술연구원	한학수 기획간사
문성인 한국전기연구소	이준영 KIST 고분자부	허완수 기획간사
문창모 동부·한농화학	임순호 KIST 고분자부	황승상 편집간사
박이순 경북대학교	정광춘 잉크테크	
박 훈 한국석유화학협회	진창수 한국전기연구소	
서용석 KIST 고분자부	최동훈 경희대	

합계 : 42명